

# 민주노동당 변화·혁신 21세기 진보를 말하다

8 노동과세계 | © 승인 2008.03.13 12:29

## 12일 민주노동당 주제 토론회 열어 민주노동당 미래 가늠

[사진1]

[공동보도] 민주노동당 혁신-재창당준비위원회가 구상하는 상의 구체적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1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변화와 혁신, 21세기 진보를 말하다'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준비위가 생각하는 혁신의 방향과, 이에 대한 내·외부 인사들의 견해를 청취했다. 당초 기획의도는 토론회였지만 다양한 내외 인사들의 참여로 행사는 원탁회의의 성격을 보였다.

**민주노동당 혁신방향...대중성 확보 위한 외연 확대 및 개방화로 갈 듯**

먼저 토론회 발제에 나선 이수호 혁신-재창당준비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의 혁신 방향을 대중성 확보를 위한 외연확대 및 개방화에 꼭지를 찍었다.

"변화와 혁신을 게을리 한 어떤 집단도 역사를 주도할 수 없고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연 이 위원장은 "총선 이후 당의 역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당원, 국민, 전문가, 학자, 대중조직, 당내 의견그룹이 망라된 '국민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그는 "당 운영의 난맥상을 초래한 패권주의 문제도 결국은 각 정파가 자신의 노선을 대중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당내 정치에 과도한 힘을 쏟으면서 정파활동의 생산성이 사라진 것 아니냐"면서 "당이 대중정치를 기본으로 활동을 전개해 왔는지 돌아보는 것이 혁신의 출발점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의 주인인 당권과 당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기반인 노동자들이 당의 주체로 튼튼하게 서지 못하고 있다"면서 "말로만 하는 노동자·농민정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농민 당원이 대규모로 당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에 한정해서 그는 "당도 노동자 당원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하고, 노동조합도 정치국을 신설하는 등 당 활동과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농민들과 밀착성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직화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것.

**이수호 "자주와 평등의 가치에 환경, 생태, 소수자, 여성의제도 실천해야"**

당의 문호를 열어 외부의 참여 길을 터줘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그는 "현재 당조직에 외부조직의 활동가들이 참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공직 선거 시 개방형 경선제 도입과 당직의 경우에도 선택적 개방형을 실시해 지도부를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시민사회, 대중조직, 연구단체, 전문가 등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열린정책포럼' 등을 실시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 체질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앙연수원의 기능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정기적으로 당 간부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최고위를 간결하게 구성하고, 중앙당을 슬림화 정책화하며, 중앙위와 대의원대회 규모를 축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정국에서 거론됐던 '진보대연합'도 혁신의 과제로 꼽혔다. "민주노동당의 기본정신인 자주와 평등은 지금도 유효하며 타당하다"고 말한 그는 "가치를 확장한다는 것은 새로운 가치를 내거는 것이 아니라 강 강령정신에 포함된 가치, 노동·계급·평화통일·환경·

생태·소수자·여성경제 등을 실천을 확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혁신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당내 일각의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답변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의 발제에 이어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기아자동차 나용곤 노동자는 "혁신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어떤 방식으로 당에 전달할 것이냐를 두고 노동자들은 우려가 많다"면서 "당이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다뤘다고 하는 데 그 처리결과 등에 대한 결과가 현장에는 전달되지 않는다. 그 통로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은 "총선에서 민노당과 신당의 양 진영이 과열적 타격을 받은 뒤 최저점에서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대중정치는 대중정치인을 통해 국민과 소통되는데 민주노동당은 심상정, 노회찬이 나간 상태여서 어떻게 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향후 혁신과정에서 대중적 정치인양성을 위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이란 말도 이어졌다.

<b>"심상정 아이디어 계승하면 위험"...우려 목소리도</b>

김인식 중구위원장은 "혁신비대위의 혁신방향이 당원 정서와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혁신사안으로 내뱉던 비례대표 전략명부가 당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비대위가 향후 행보에서 고려해야 하는 점"이라면서 "과거 자유주의적 자본가당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민주노동당에 와서도 자신의 과거 선택에 대해서 비판적 성찰이 없는데, 이런 방향이 비대위의 혁신방향과 일치하면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 날 시대적 요구와 진보적 기준이 전쟁과 신자유주의, 주류정치를 반대하는 것이라는 데 전선을 명확히 하고 개방과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심비대위는 당을 오른쪽으로 움직여 표를 많이 받았다고 했지만 당원들에 의해 거부당했다. 거기에 대해 비판없이 심상정 아이디어를 계승하면 평당원의 정서와 어긋나는 것이다"고 비대위의 혁신방향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민주노동당 김인식 중구위원장, 기아자동차 나용곤 노동자, 한국진보연대 정대연 정책위원장, 정인환 협성대 교수(전 초록정치연대 실행위원), 지금종 비례후보, 최규엽 집권전략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 밖에도 최병모 전 민변회장,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 박석률 진보연대 공동대표 등 당 외부인사 20여 명이 참여해 민주노동당의 행보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공동취재단=제정남기자/민중의소리>



노동과세계 kctu@nodong.org